

제5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말씀 묵상 그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며 살았던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조언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바울을 통해 권면하신 성령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 ()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며 살았던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조언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1) ()로 받았으니...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근거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의 기본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

→ 교회론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① ()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Lord)”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신분제도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엇인지, 종은 어떤 삶을 사는 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판단에 무조건 따라야 했고, 주인의 결정이 곧 종의 삶이었습니다.

Ⓐ ()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21)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14)

㉞ ()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1-3)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6-10)

→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그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㉟ ()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기대가 우선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가복음 10:33-41)

→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는 것은 ‘영광중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즉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고보 사도는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② ()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 주인이 아니라, 내게 주인이 되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① ()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3)

②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37)

이 외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것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 상사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인 우리에게서는 제물도, 세상 권세자도,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2) ()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앞에서 ‘주인 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① ()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즉 뿌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4-5)

→ 우리의 싸움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

주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 행위 두 번째는 바로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NIV)에는 이 부분을 “built up in him”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치 건물이 세워져 가듯이 그 안에서 “built up”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 가느니라”

(에베소서 2:20-22)

→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장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날에 완벽하게 지어질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세움을 받아’ ‘지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③ ()

주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지도자 ‘에바브라’에게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내용과 가르침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④ ()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절대로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3-14)

→ 바울에게서 들은 바 믿음의 교훈과 복음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㉞ ()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은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그러니 조석으로 변하는 감정을 따라 믿음도 흔들리고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기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4-15)

㉟ ()

주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 행위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살아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정도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 그것도 ‘넘치는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18-21)

→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냐와 관계없이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 목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